

오순절 후 열한번째 / 창립 45주년 기념 주일  
THE WORSHIP SERVICE OF 11TH SUNDAY AFTER PENTECOST

주후 2023년 8월 13일 오전 10시  
인도: 김일선 목사

*입례 찬양 Opening Hymn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같이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찬 송 Hymn	600 장 “교회의 참된 터는” (통일 242)	다같이
*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	81 번 (에베소서 4 장)	다같이
*고백의기도 Prayer of Confession		다같이
*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		인도자
*송 영 Gloria Patri	643 장 “세번 아멘” (통일 555)	다같이
*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		다같이
기 도 Prayer of Intercession		김재우 장로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디모데후서(2 Timothy) 2:19-21	고원희 집사
찬 양 Anthem	“감사함으로 받으면”	찬양대
설 교 Sermon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God's Solid Foundation Stands Firm)	김일선 목사
결단의찬양 Commitment Hymn	“삶의 막막함 가운데”	다같이
주의 만찬 Communion	(집례: 김일선 목사)	다같이
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		다같이
봉 헌 Offerings		다같이
*송 영 Doxology	317 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통일 353) 1 절	다같이
*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		다같이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파송 찬양 Sendig Hymn	208 장 “내 주의 나라와” (통일 246)	다같이
*축 도 Benediction		김일선 목사

\*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고백의 기도

(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기록하신 하나님,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임을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죄된 욕망에 사로잡힐 때가 많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함을 잘 알면서도,

세상의 소리에 더 민감하며, 세상과 타협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앞에서 자주 무기력해지곤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이 죄인을 용서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불신앙과 교만과 위선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리하여, 질그릇과도 같은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며,

주의 몸된 교회가 더욱 견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말/씀 TODAY'S SCRIPTURE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개역개정 딤후2:19)  
“Nevertheless, God's solid foundation stands firm, sealed with this inscription: "The Lord knows those who are his," and, "Everyone who confesses the name of the Lord must turn away from wickedness.".” (NIV 2 Timothy 2:19)

매/일/성/경/읽/기 DAILY BIBLE READINGS

날짜	8/13 (주일)	8/14 (월)	8/15 (화)	8/16 (수)	8/17 (목)	8/18 (금)	8/19 (토)
	삼상3	삼상4	삼상5,6	삼상7,8	삼상9	삼상10	삼상11
본문	롬3	롬4	롬5	롬6	롬7	롬8	롬9
	렘42	렘43	렘44	렘45	렘46	렘47	렘48
	시17	시18	시19	시20,21	시22	시23,24	시25

수/요/ 찬/양/집/회 토/요/ 새/벽/기/도/회

수요 찬양집회 (8/16수 오후7:30)	“일곱 문장으로 읽는 신약”(7)-“완성” (계21:1)
토요 새벽기도회 (8/19토 오전6:30)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도다” (시119:49-56)

지난 주일(8/6) 말씀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골로새서 1:9-12)

오늘 본문인 골로새서 역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기록한 옥중서신인데, 특이한 사실은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복음을 전해서 개척한 교회가 아니라, 본문 앞에 나오는 “에바브라”라는 신실한 한 사람을 통해 세워진 교회였고, 수 년 후,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수감되었을 때, 사도 바울은 에바브라를 통해, 골로새 교회의 형편을 듣고 나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기도할 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곧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골 1:3)고 고백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매우 중요한 결심을 합니다. (바로) “We have not stopped praying for you and asking God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겠다)”는 결심입니다. 이는 (마치) 사무엘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삼상 12:23)고 고백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했다고 했던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신앙 성숙을 가져오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며, 가치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요약하면) 1)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고9절), 2)둘째는, “기쁨으로 모든 견딜과 오래 참음에 이르든 것”(11 절), (마지막) 3)셋째는, “전한 일에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10절). 그럴 때야만, 우리는 신앙의 올바른 방향을 잃지 않으며, (참된) 신앙의 성숙을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 모두 믿음 안에서 삶을 빛어내며, 신앙의 성숙을 가져오는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 메/모